

태국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님들께.

김남현, 안선영 선교사입니다. 다들 평안 하시지요?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선교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1. 냥나캄 교회



개척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지난 주에는 두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내년 3월 중에 전도처로 공식적으로 알리는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100% 태국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장해 가는 교회의 기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뿌듯함이 있습니다.

2. 크리스마스 전도

태국의 교회들은 성탄절 행사를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며 저희 선교부도 12월 내 성탄 전도 집회를 합니다.

3주전에 어른 한명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분을 찾아갔는데 며칠전에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떠났다는 소식을 가족으로부터 들었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 복음을 듣고 삶을 마감한 이분을 통해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어서 안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살았던 마을에서 오는 16일 날 성탄 전도 집회를 합니다. 모이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나누는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 구입과 음식 대접 등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불신자 대학생들을 위한 전도 캠프 (1월 5일 -7일)

내년 1월초에 태국의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수련회를 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한동대학교 예술 동아리 학생들 100여명과 태국 대학생들 150여명등 전체 250여명이 모이는 수련회입니다. 저희 선교부의 모든 사역자들이 이것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프로그램과 노력, 준비 등으로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위해 참여하는 한동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며 특별히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태국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 수련회를 준비하는 진행팀들, 필요한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